

추석 연휴 ‘임실N치즈축제’ 가자

임실 방문의 해 맞아 4~5일 기간 확대... 10월 8~12일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최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군이 2025 임실N치즈축제를 기존 4일에서 5일간으로 특별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일 심 민 군수 주재로 각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2025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관광객 안전대책과 편의 시설, 프로그램 구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만큼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기간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군이 2025 임실N치즈축제를 기존 4일에서 5일간으로 특별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높은 저지종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숙성치즈와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연계 프로그램을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준비하는 등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대폭 강화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실N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 풍류 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영 썰피자

△저지종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홍보 등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이자 축제 11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임실만의 특별한 매력과 풍성한 즐길거리를 담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어 가을의 정취와 치즈의 향연을 만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의료원, 최초 5년 연속 ‘최우수’

전북자치도 주관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서 ‘가’ 등급 획득

남원의료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유형별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최우수 등급의 기준이 90점에서 92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 5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정년도와 동일하게 6개 분야 11개 항목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ESG경영 선포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기관장 주도의 실행의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협조 등 도 정책사항 반영 노력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진규 원장(사진)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은 전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로 환자 행복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

임실군이 지난 2일 청용면 소재의 대로농장을 방문하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봉 2천6백만원 이상

근로계약(2년),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E-7-4R 비자로 승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고 배우자 입국과 취업이 가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임실군에서는 비자를 승급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후 1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 승급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이 개최됐다.

순창군 최초 주민자치회 출범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가저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 이운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순창군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위원 모집과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이번 출범을 이루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등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 주민참여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운택 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우리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라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유등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권 확대가 명시된 바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원원 기자

남원시,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추진

남원시는 8월부터 2025년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2024년에 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총 372동을 철거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148동, 비주택 43동으로 총 191동을 철거 완료했다.

남원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8월~10월까지 90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원시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9월 19일까지 받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700만원이고, 창고·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 철거는 20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차례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해 건물용도·건물 면적 등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미신고 반려동물 집중 단속·캠페인 전개

남원시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사진 신고기간(25.9.1~10.31)을 통해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동물은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소유주에게 동물을 인계하여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 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9구급차가 꼭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출동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례에서 단순 감기, 만성질환 통원, 술 취함 등 경미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 실제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의상 등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의 구조가 지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승범 구급팀장은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가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별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